

2018년 산업안전, 이렇게 바꿉니다

2018년 산업 안전 |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안전보건공단의 비전은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입니다.

목표는 사고사망 만인율 0.44% 달성입니다.

1987년 설립 이래로 안전보건공단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설립 당시 2.66‰에 이르던 사고사망만인율은 0.5‰대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독일에 비하면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산업안전의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를 조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달성을 목표로 더욱 힘써나갈 예정입니다.

2018년 산업 안전 | 추진전략

안전보건공단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요중심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안전보건문화 확산, 자율 안전보건관리 구축지원 강화, 미래성장 역량 강화」입니다. 산재 예방의 궁극적 목표인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전략을 세워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 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

1. 중대 산업 재해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사고가 나면 크게 사상자가 나는 화학사고와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해 법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단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업무를 새롭게 추진하며 가스 누출 및 확산 시 사고가 미치는 범위를 가상 시뮬레이션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리 알아봄으로써 정비, 보수작업에 대한 위험 경보제를 운영합니다.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와 같은 위험작업에는 현장과 공단이 함께 중점기술지도에 나섭니다. 중점기술지도는 원격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공정을 확인하고 안전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 산재 취약계층 재해 예방 역량 집중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안전보건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3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술 및 교육, 재정을 지원하며, 20인 미만의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사업장에 대한 비용 또한 전수 지원합니다. 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의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안전발판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 플랫폼 종사자, 고공 작업 등에는 작업 특성별 안전보건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사고성 재해를 예방합니다. **안전보건 지원 공모 사업을 실시해 산재 트라우마 센터, 산재 취약계층 보호, 안전문화 홍보 등 현장 맞춤형 사업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모기업 중심의 자율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확립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개선이 이뤄집니다. 핵심 방향은 원청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데 있는데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원하청에는 재정사업 지원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현장 기술 지원, 산재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재해율이 높은 1000인 이상의 제조업과 철도 도시철도 운수업을 대상으로는 원청과 하청의 산업 재해 통계를 통해 산출함으로써 원하청이 하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식업 프랜차이즈업, 건물관리업, 단체급식업, 대형유통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본사가 소속된 가맹점이나 지점의 산재 예방 활동을 직접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게 됩니다.